

< 說 苑 >

動物園從橫談(Ⅳ)

— 호랑이의 怪變 —

吳 昌 泳

1. 머 리 말

1964年 3月7日 昌慶苑에서 十年來 걸려오던 암 호랑이 金剛號가 交配中 숫놈“벵가리一號”의 突變의인 노여움을 사므로 단 한입에 無慘히 목덜미를 물려죽은 색다른 事件은 苑當務者들은 말할 것도 없고 社會에 큰 놀라움과 話題거리가 됐었던 일이 뜬셋만의 오늘 미처 가라 앉지 않은 衝激과 아물지 않은 傷處를 건드려 준다.

大抵 野獸의 一般的 習性이 弱肉強食하고 適者만이 살 수 있는 生存競爭의 마당에서 本來的으로 이루어진 天性이라고는 하겠지만 또한 나아가서 그러하기 위하여는 同族相殘도 不辭한다는 그들이겠지만 百獸의 王으로 獅子와 더불어 일컬리우는 호랑이의 이 椿事는 아직까지도 못다 풀은 許多한 나의 疑問과 함께 한편으로는 적어도 動物을 다루는 한 分子로서 冷靜한 제자리에서의 反省을 갖게한 機轉을 얻은 셈으로 自處하는 바이다. 卽 다알다던 限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알고 行해야 되겠다는 反省이다.

뜬셋만에 문득 생각키우는 호랑이의 慘事! 혹시 적으나마 參考의인 이야기 꺼리가 될가하여 이에 도리켜 보기로 함과 아울러 제제에 호랑이에 관련된 몇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2. 慘事의 始末

約 10年前 終戰後 敗復當時의 動物園에는 참으로 한마리의 짐승도 없었다. 各界 各方面의 눈코 뜰새 없는 再建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動物園도 또한 빈우리에 動物을 채워 넣기에 바빴다. 어느 날 動物園의 굶직 굶직하던 主人公들이 거의 當時의 各層 市民有志들의 聲援에 의하여 들어온 것

과 같이 때를 함께하여 金剛號와 白頭號의 두 암 호랑이가 들어와 10年을 하루같이 서로 慰勞하듯 외로운 閨房을 歎息속에서 살아 왔었다.

管理者인 우리들도 恒常 이들에게 좋은 郎君을 마련해 줄것을 渴望하던 中 마침 公演次 來韓한 中國의 沈常福 “씨커一스”團에서 그럴사한 숫놈 한마리를 發見하여 買賣를 提意한 結果 多幸히 成立을 보아 1963年 11月29日 이를 사들이게 되어 宿願인 이들의 結合과 蕃殖이 되기를 서둘렀다. 大概의 野生動物, 特히 猛獸類들에 있어 그렇게 하지만 動物園에서는 언제던지 낯선 新入生들을 無謀하게 닳자 못자로한 우리에 넣는 일은 없다. 그것은 이들이 所謂 管轄權이라 할까 덧세라 할까 처음 만나면 依例히 熾烈한 鬪爭으로 優劣을 다투어 때로는 殺傷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新入生の 숫놈을 方式에 따라 在來의 암놈들과 서로 바라 볼 수 있는 우리에 收容하고 于先 이들이 親熟해 질때를 기다리며 動態를 살피기로 하였다. 그러던 中 한달後 金剛號가 異常하게도 前에 없이 숫놈에게로의 接近 意慾을 보이기 始作하더니 숫놈 또한 이에 對應하는 듯 態度의 變化를 이르켰다.

卽 암놈은 숫놈 우리와의 境界鐵柵에 몸을 대어 頻繁한 排尿와 함께 꼬리를 비끼며 자주 아웅—아웅— 울어 숫놈을 誘惑하는 態度이며 숫놈 또한 鐵柵에서 떠나지 않고 排尿와 熱熱한 接近慾을 보이는가 하면 때로 鐵柵사이로 발을 내밀어 서로 愛撫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動態變化는 우리들로 하여금 發情徵候임을 疑心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狀態에 놓아둔지가 日淺할 뿐만 아니라 한번 호랑이의 本性인 嚴正한 固立性과 經驗知識이 알았던 탓으로 열린 新房을 꾸며줄 自信이 안생겨 그냥 더두고 보기

로 하였다.

이러한 變狀은 몇日 계속되지 못하고 消散되었기 때문에 모처럼의 機會를 놓친것 같은 생각에 後悔도 하였지만 1964年 1月 16日~1月28日 사이에 再顯하였으며 前記한 諸變化는 바라던 마음에서 었던지 좀더 길어진것 같이 보였다. 이번에도 주저하다 지나치고 말았다.

이로부터 다시 約 한달후 症狀은 거의 典型的인 것으로 나타나기 始作하였고 때문에 内外의 衆智를 모아 한번 舍命을 決行하기로 하고 適時를 3月7日 아침으로 擇하였다.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그래도 한번쯤은 무서운 다름이 있을 것을 豫想하여 非常 對備로 撒水와 곤봉등을 갖추어 놓고(호랑이나 사자가 싸울때 물을 뿌리면 容易하게 分離시킬 수 있음) 10時20分경 암놈과 숫놈 칸의 사이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먼저 암놈이 숫놈 우리에 극히 例事로히 自然스럽게 들어갔으며 숫놈 또한 잠간 동안은 色다른 表情이 없이 곧이어 암놈에게로 닥아들어서 前肢를 올려 愛撫하듯이 하며 허를 내어 相對方을 핏는 等 行動이 約 2分쯤 持續하더니 以來 암놈이 꼬리를 비키며 後軀를 許함에 따라 숫놈이 常例처럼 암의 外陰部를 몇번 핏은後 개의 그것과 같이 交尾姿勢를 取하고 4~5回의 律動을 認識하는 瞬間 突然 암놈이 몸을 재기면서 刹那的으로 숫놈의 鬚을 갈기듯 보였으며 이때 숫놈이 發作的으로 怒號하면서 앞발로 머리를 強打하여 쓰러트린後 암놈이 앞다리를 뻗쳐 必死의 防禦를 함에도 不拘하고 거의 一方的으로 참으로 悠悠히 입을 벌려 목통을 물어 치켜들고 한번 強하게 左右로 흔들은 後로는 그 騷亂하던 舍內는 다치 물에 잠긴듯 高요하기만 하였다.

金剛號와 “벤가리-!” 그들의 悲慙은 끝난 것이다.

그러나 “벤가리-”의 怒氣는 쉽사리 가라 앉지 않는 모양이었다. 목을 물은채 우리들의 가진 方法과 手段을 다한 分離의 努力에도 아랑곳 없이 거의 아무런 負擔도 느끼지 않는듯 마치 고기 한 조각을 붙은것처럼 이리 저리 끌고 다니기를 約 20分間! 아무래도 急히 돌아간 映畫“스크린”을 본것 같이 惡夢같은 刹那 刹那의 連續이었다.

3. 뒷 이야기

어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나니 萬感이 었갈린다. 또 其 原因에 對하여도 十人十色 벼라별 억측이 꼬리를 물고 物議를 자아냈다.

가) 交配 適期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即 암 수의 發情이 合致點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體軀 差異가 너무 甚하였기 때문이다. 即 金剛號의 約 120kg 體重에 比하여 “벤가리-號”의 約 80kg의 體格 差異가 甚하다는 것이다.

다) 產地가 다른 亞種間이기 때문이다. 即 金剛號는 印度支那產(Felis tigris sondaica)인데 對하여 한 쪽은 “印度 벤갈”地方(Felis tigris)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베리아”產이라고도 하였으나 諸特徵은 “벤갈”產에 보다 가까움)

라) “벤가리-”의 固有한 性格 때문이다. 卽 이러한 惡癖은 前科에 依하여 生겼을 것이다. 等等.

其他 모든 可能하고 推測할 수 있는 일들을 두루 追究하여도 얼른 肯定될만한 그럴듯한 原因을 캐낼 수가 없다.

다만 “벤가리-”의 詳細한 資歷은 다 모르지만 本是 이놈은 沈常福團에서도 曲藝를 하지 않았다는것 바꾸어 말하자면 曲藝를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만치 이놈에게는 本來의 凶惡한 性格이 있었던 탓으로 調教에 順應하지도 않고 순처 시킬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推測은 “벤가리-”가 入籍한지 1年餘를 두고 길러오는 동안 確實히 潛在的인 凶暴性이 있다는 確信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런 것으로 看做하고 取扱하여 오는 터이다.

4. 金剛號의 殘骸

그러므로 金剛號의 殘骸는 解體해보기로 하였다. 剥皮를 하고 于先 물린 목통을 살피니 頭蓋骨과 第一頸椎는 脊髓까지 完全히 離斷되었고 더구나 頸椎는 復雜骨折이라기 보다 마냥 으스러져 있었으며 咽喉와 氣管 上部는 散散히 찢기위져 있었다. 아무리 所謂 猛虎라기로서니 다시 한번 그 偉大한 힘에 놀라움과 感嘆을 하여마지 않았다.

肺에 “지스토마” 症狀이 顯著한 것이 附記 할만 하고 生殖器은 大體의으로 受胎態勢에 있었다는 것이 內外 識者間의 一般의 見解였다.

骨肉은 漢方에 神經性 諸症에 靈藥이라 하여 希望者들에 분양되었고 表皮는 剝製 標本이 되어 昌慶苑 生物 標本館에서 그저 알곳은 前生을 阻 呢나 하는듯 오늘도 마냥 노려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5. 호랑이의 常識

호랑이의 怪事는 以上과 같거니와 既往 이야기 끝에 이의 生物學的 見地에서 言及하는 것도 적은 意義나마 있을가 生覺하는 바이다.

가) 分類學的 位置

개 목(食肉目)

괘이과(貓科)

학 명 : *Felis tigris*

나) 分 布

호랑이는 아시아 產으로서 北으로는 한국, 만주, 우스리 및 北支那로부터 南으로는 스마트라, 자바, 바리島에 이르며 西로는 인도 및 土耳其까지 살고 있어 그 分布는 상당히 넓은 것이다.

호랑이는 地方에 따라 털의 길이, 검은 줄무늬 색깔의 濃淡 및 體格의 크기로 보아 多少의 變化가 있으며 아홉 亞種을 가릴 수 있다.

인도의 벨갈 호랑이는 호랑이의 基亞種으로서 색깔이 짙고 本種中 가장 큰 것으로 네팔, 인도와 마래半島서부터 인도支那에 살고 (이 地方의 것을 別個亞種으로 보는 이도 있다) 몽고 호랑이는 아무르, 우스리, 北만주 및 몽고에 分布되어 색깔이 옅고 털은 가장 좋다. 分布地의 가장 南쪽에 사는 바리 호랑이는 섬형(島嶼型)으로 體格이 작고 動物 地理學上의 “와루스”線을 넘지 않는다.

다) 한국 호랑이(*Felis tigris koreansis*) 우리나라의 所謂 한국 호랑이는 特有한 것으로 예로부터 허다한 傳說과 逸話로서도 傳해 내려오다 시피 그 으짖는 習性과 풍모로 보아 他에 類例가 없다고 하겠으며 數十年前까지도 北으로는 白頭山에서부터 金剛山에 이르는 山脈의 特히 西쪽에 또 한 南으로는 慶州서부터 蔚山까지의 山脈 西쪽

과 全羅南道에 적으나마 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咸鏡道の 奧地에서 間或 잡히는 程度로 그 數가 줄어들어 거의 絶滅에 가깝다고 學者들(田子, 上田)은 公表하였다. 即 近 百年以來 이 땅에서 호랑이가 잡힌 地名은 文獻에서 살펴 보건대 咸鏡北道 茂山(1935年 5頭). 咸鏡南道 高山(1829~30年頃 1成1仔). 全羅南道 靈光郡 佛甲山(1911年 1頭, 當時 木浦 小學校에 있었음). 江原道 加里山(1918年 8 1頭). 慶尙北道 慶州郡 大德山(1922年 8 1頭). 平安北道 雲山郡 北嶺(1930年 1頭 當時 李王家 博物館에 있었음). 程度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더구나 요즘은 南韓의 어느곳에 호랑이가 있다 없다 등을 論함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호랑이를 規定함에 있어 Pocock氏는 만주호랑이와 대개 같은 것이 아닌가 보았으나, D. Brander氏에 依하면 만주 호랑이에 比하여 本質의으로 다르다고 하는等 學者에 따라 異說이 많다.

라) 形 態

호랑이는 前述한바와 같이 地方에 따라 形態上 多少의 變化가 있으며 赤, 白, 黑의 三色 變型도 드물게 볼 수 있다. 代表的인 한국 호랑이의 一例를 보건대 등의 바탕은 어두운 黃色(Mars Yellow Ridgway 標準色에 依함)으로서 四肢에 이르러 多少 옅은色(Dark Ochraceousbuff)으로 變한다. 등에는 不規則한 검정 줄무늬가 많으며 앞다리 前面에는 적다. 주둥이는 어둡고 연한 皮色 눈통이, 뺨 및 下面은 純白色에 뛰어난 검정무늬가 있고 頭上, 등의 後半部, 뒷다리 및 배의 髒斑은 가장 뛰어나다. 꼬리의 基部는 등과 同色이며 끝에 가까운 部分과 後面은 帶灰白色 乃至 皮色으로서 대략 여덟개의 黑輪이 있고 끝의 두개는 검정 部分이 많다. 뒷등은 검고 白色의 큰 斑點이 한개가 있으며 털의 길이는 등의 검정 털이 31mm, 누른털이 23mm, (但 겨울털은 그 以上.) 體重은 다 자란 숫놈으로서 153.8~172.5kg, (上田). 몸길이 (주둥이 끝으로부터 궁둥이 끝까지) 186cm, 꼬리 길이 87cm, 귀 9cm, 앞발톱의 가장 긴 것이 3.7cm(慶北產, 黑田) 程度이다.

또한 이 動物을 特徵 지우는 가장 重要한 要素

로서 날카로운 잇발과 발톱, 그리고 強引한 다리를 들 수 있다. 卽 어금니는 둥날 모양으로 생겨 고기를 씹어 끊는데 알맞게 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송곳니는 먹이로서의 旣 動物을 물어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하며 발톱을 自由로히 은폐 또는 출현시켜 外敵에 對抗하고 고기를 찢기에 알맞게 되어있다. 앞 다리는 全體 몸의 均衡으로 보아 異狀하리만치 잘 발달되어 旣 動物들은 우선 이의 一擊으로 쓰러지게 마련이다. 발바닥에는 단단한 혹이 있어 먹이를 찾아 소리없이 目的 動物의 近處까지 接近할 수 있으며 혀에는 갈퀴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 고기나 뼈를 잘 핥게 되어있다.

마) 生 態

1차 1批制 또는 孤獨性이며 主로 岩山 또는 장굴에 隱身하고 있다가 밤에 活動하여 사슴, 멧돼지, 鳥類등을 奇襲하고 昆虫도 먹으며 늙고 病들어 活動力이 없는 늙은 鹿로 사람이나 家畜을 습격하는 일도 있다.

無慮 數十마일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으나 고양이나 표범처럼 나무에 오르는 서툴다.

호랑이는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내어 연거퍼 울지는 못하나 성났을 때의 외마디 咆哮는 참으로 위압적인 것이다. 妊娠期間은 約 100日 前後로서 한번에 세마리 前後의 새끼를 낳으며 새끼는 거의 다 자랄때까지 어미를 따른다. 호랑이가 먹이를 잡는것은 虎사 고양이와 같은 것으로 巨身의 숨기기 쉬운 털빛 같과 조용한 발걸음으로 대개는 旣 動物들이 지나다니는 通路나 물가에 숨어서 動物의 出現을 기다리다가 이를 奇襲하는 것이며 速力이 빠른 사슴과 같은 動物이라 할지라도 大槪는 얼이 빠져 미처 달아나지를 못하고 갈팡질팡 할때 잡히고마는 것이다.

호랑이의 壽命은 대개 25~30年이다.

6. 蛇 足

거의 年中 新聞紙上이나 放送은 호랑이를 잡았다는 놀라운 記事들이 屢屢하게 報道된다.

그런적 마다 이들의 歸着點은 依例히 昌慶苑으로 되게 마련이다. 오라고 해서 가보거나 가지고 와서 보면 이 世上을 놀라게한 所謂 호랑이는 거의 例外없이 “삼”임이 밝혀진다. “삼”은 살기 살

가지, 삭둥이, 살팽이, 산팽이 또는 개호주 等等 많은 方言으로 불리우는 우리나라 全域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羆이科의 野生動物이다. 形態와 習性이 같은 羆이科로서 호랑이나 표범에 많이 닮아 專門家가 아닌 一般市民들로서는 얼른 區別이 안되기도 하지만 鑑定에 依하여 “이것은 삼이다”라고 일러주어도 얼른 알아 듣는 분이 많지 않다. ㅅㅅㅅ는 地方의 中高等學校 生物學先生님이나 古老들 또는 獸醫師의 鑑定을 받은 結果를 립없다는데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질때가 많다. 勿論 그게 事實이라고 믿어지지 않는지만 혹시 參考가 될가하여 몇가지 簡單한 區別點을 들어보기로 한다.

가. 分布狀態

- 1) 호랑이 적어도 南韓에서는 絶滅된 것으로 보인다.
- 2) 표범 : 近來 慶南 합천 伽倻山(줄기(五道峰)와 智異山에서 幼獸를 生捕한 例가 있으며 其他 큰 산줄기에도 棲息한다하나 極히 稀少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삼 : 國內全域에 널리 分布되어 있다.

나. 形 態

- 1) 호랑이 : 體重 150~170kg, 頭胴—186cm, 꼬리—87cm, 갓난 새끼라도 中等大의 고양이만한 것이니 삼의 成獸보다 多少 작은 程度이다. 색깔과 무늬에 對하여는 前項에서 詳述한바와 같다. 幼獸도 大略 成獸의 色調에 準한다.
- 2) 표범 : 호랑이 보다 작아서 頭胴 140cm, 꼬리—80cm, 色調는 호랑이와 비슷하나 줄무늬 대신 獨特한 豹斑, 卽 背部에는 “커—피” 씨 모양의 黑斑點이 크고 頭部나 四肢 末端에 갈수록 적은 一點의 두늬로 變한다. 幼獸 또한 이에 準한다.
- 3) 삼 : 地色은 灰褐色이며 多少 個體變異가 있으나 이마에 帶栗黑褐色이 平行하는 두줄이 後頭部를 넘고 그에 沿하며 白線이 있다. 全身에 褐色斑이 있고 꼬리에는 暗褐色 環狀斑이 있다. 頭胴—60cm, 꼬리—30cm內外 幼獸는 색이 좀 짙어서 帶栗褐色이며 갓난 것은

(25 頁에 계속)

2. 李揆弼 譯 家畜傳染病學. 初版, 大韓獸醫師會. 1960, pp. 357~384.
3. 衛生獸醫學集談會, 公衆衛生綜典, 朝倉書店 1952, pp. 125~129.
4. 농림부 축정국, 수의위생통계. 1959.
5. 越智勇一家畜傳染病 第2版 1961, pp 35~370.
6. 板垣四郎. 家畜疾病學 內科編 産業圖書. 1948, pp.89~93.
7. 近藤正~・石井進. 家畜傳染病診斷學 第5版 1949, pp.343~346.
8. 金鍾隱. 國民醫學全書. 學園社. 1958, p.165.
9. 武藤喜一郎・成井尙義 獸醫內科學講本(感染病編) 第5版. 克誠堂. 1935, pp.224~240.
10. 李澤佐・李鉉洙・陳榮玉. 犬體用 狂犬病豫防劑의 研究 農林部 中央家畜衛生研究所研究報告 1, 14~27, 1953.
11. 赤澤笹雄. 家畜傳染病學. 文永堂. 1952, pp.28~34.
12. 松榮重雄. 家畜疾病學
13. 勝島仙之介・新美信太. 家畜內科學 下卷 南江堂 1937, pp 348~363.
14. 越智勇一. 獸醫公衆衛生學. 1961, pp.31~33.
15. 金承鉉, 家庭醫學大典 1959, pp.121~122.
16. Chun Nam HO. Rabies and Its Biological Products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961
17. 張翼軫・全南昊. 恐水病과 狂犬病. 大韓醫學協會誌. 4(7); 36~51, 1961., 4(9);24~25, 1961.
18. 邢誠每・元鳳來・李燦明. 狼犬의 咬傷에 依한 狂犬病 發生例, 大韓獸醫學會誌 2(2); 1~ 3, 1962.
19. 新美達郎, 家畜內科學 1955, pp.241~244.
20. 黑澤亮助, 家畜疾病相談 朝倉書店. 1949, pp.147~148.
1. 板垣四郎・深野高正・家畜傳染病學 産業圖書. 19261, pp.75~78.
22. 金五町. 狂犬病 診斷法에 對하여, 獸醫界2(3), 39~43, 1958
23. 金在仁・金壽業・鄭雲翼. 山羊 狂犬病의 一例. 獸醫界. 3(1); 18~19. 1959.
24. 農林省家畜衛生試驗場 (日本), 技術者集談會編. 家畜傳染病診斷學 各論. pp.228~295.
25. 齊藤保二. 北里醫學 ニ코ース. 狂犬病特集.16;3~7, 1957.
26. 安東淸 外 5名. 狂犬病의 免疫學的 診斷法에 關한 研究. 文部省 科學試驗研究所 (Virus 班 報告) 1952.
27. 陳榮圭, 恐水病, 獸醫界. 2(1); 25~26, 1958.
28. 趙炳律, 개에 물린 사람에 대하여 덜어놓고 豫防注射을 맞으라고 할 것인가 獸醫界.2(3);65, 1958.
29. 近藤正一. 家畜傳染病診斷學 各論 1952, p.280.
30. Webster; Rabies. L.T. 1944.
31. Ando, K. Jap. J. Med. Sc. Biol.6; 221,1933.
32. WHO. technical report series 195. Expert Committee on Rabies.
33. Webster, L.T. & Clow, A. Science. 84, 120, 1936.
34. Klinger, I.J. & Bernkopf, H. Proc.Soc. Exp. Bio Med. 33; 212, 1939.
35. Bawson, J R. Science. 89; 300, 1939.
36. Koprowski, H.& Cox. H.R. Bact. 54: 74, 1947.
37. Yoshino, K. et al; Jap. J. Med. Sci. Bia. 9, 259, 1956.
38. Galloway, I.A.& Elford, W J. J. Hyg. 33; 532, 1935.
39. Labaditic, C. et al. Compt. Rend Soci.Bio. 123; 856, 1936.

—(59頁에서 계속)—

고양이의 그것과 흡사하다.

다. 生. 態

- 1) 호랑이 : 獠猛類例 없으며 單發의 咆哮와 警戒할 때는 連續的으로 으르렁대어 周圍를 偉壓한다.
- 2) 표범 : 咆哮함이 없고 性質이 狡猾 有毒하여 恒常 寄襲의 機會를 노리다가 “카—”하는 소리를 내며 습격後 바로 後退하여 再襲 노을

린다. 警戒聲은 호랑이와 비슷하나 偉壓의 因 是은 못된다.

- 3) 삼 . 棍棒等으로 加害動作을 하면 머리를 뒤로 비끼며 한쪽의 앞다리를 들어 防禦하며 繼續 “카—” “카—”하는 소리를 낸다. 加害가 甚하면 발랑재껴져서 防禦한다. 以上을 參酌하면 이들 三者의 區別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生覺된다.

<筆者=昌慶苑 動物園長>